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5. 23.(화) 06:00 < 5.23.(화) 석간 > 배포 2023. 5. 22.(월)

에너지·광물 자원 부국 칠레와 자유무역협정(FTA) 개선 협상 재개

- 에너지·광물 자원 부국 칠레와 7차 개선 협상(5. 22.-24., 산티아고)
- 세계적(글로벌) 신통상 규범, 경제협력 규정 도입 통한 선진 통상연대 강화
- 공급망 안정성 확보, 에너지·광물 협력 확대 근간 마련에 총력

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(FTA) 개선을 위한 제7차 공식협상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.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)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칠레 방문 계기 양국 간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, 차기 협상의 신속한 개최를 위해 칠레 정부와 후속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협상 개시를 가시화했다.

이번 7차 협상의 수석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은 “한-칠레 자유무역협정(FTA)은 2003년 양국이 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(FTA)로서 그간 양국 교역규모가 5배 증가하는 등 교역 확대에 크게 이바지해왔다”라고 언급하면서, “한-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상품 교역을 뛰어넘어 공급망, 에너지·자원 협력, 디지털 무역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▲세계적(글로벌) 신통상 규범 반영, ▲첨단산업 및 에너지·광물 공급망 안정화, ▲북남미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칠레와의 선진 통상연대 강화 등을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번 협상은 2021년 10월 6차 협상 이후 근 2년 만에, 대면 협상 기준으로는 2019년 10월 3차 협상 이후 근 4년 만에 재개되며, 수석대표 회의와 상품, 협력, 무역원활화, 지재권, 성평등, 노동, 환경 등의 분과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이행과	책임자	과 장	고 현 (044-203-57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원 (044-203-575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한-칠레 FTA 7차 개선 협상 개요

□ **일시/장소** : 5.22(월) ~5.24(수), 3일간, 칠레 외교부(산티아고)

□ **협상 대표단** : 우리나라 및 칠레 정부 약 50여명

○ **(양측 수석대표)** (韓) 안창용 FTA정책과장(FTA정책관 직무대리)
(칠) 세바스챤 고메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

- **(우리측)** 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문체부, 산림청, 특허청 등 7개 부처 분과장 및 담당자

- **(칠 측)** 외교부, 금융부, 법무부 등 3개 부처 분과장 및 담당자

□ **협상분과** : 상품, 협력, 무역원활화, 지재권, 성평등, 노동, 환경 등

【참고】 한-칠레 FTA 개선 협상 추진 경과

◇ '16.11.18일, APEC 계기 **개선 협상 개시선언**

◇ '18.11월 ~ '21.10월, 총 **6차례*** **개선 협상 개최**

* (1차) '18.11월(서울), (2차) '19.7월(칠레), (3차) '19.10월(서울), (4차) '20.11월, (5차) '21.6월, (6차) '21.10월

◇ '22.10.11일 총리님-칠 보리치 대통령 면담 계기 **개선 협상 재개 합의**

◇ '23.3.8일 양국 수석대표 회의 통해 **7차 개선 협상 일정 확정**